

중국-캐나다, 넥센 인수 “기싸움”

중국, 비즈니스 정쟁화에 반대 ... 캐나다는 반대여론 68% 육박

중국 국유기업의 캐나다 석유기업 인수에 대한 캐나다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가 “비즈니스를 정쟁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캐나다를 방문한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이 9월23일(현지시간)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산장관과 회담하기에 앞서 나온 발언은 중국 고위 당국자가 문제를 처음 경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장권싸이 대사는 캐나다 전국지 글로브 앤 메일과의 9월22일자 회견에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며 “정쟁 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권싸이 대사의 발언은 캐나다 정부가 야당과 여론 반발을 의식해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의 넥센(Nexen) 인수가 <환경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 중국과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양국 사이의 공정한 무역과 투자를 보장하는 확실한 기반이라고 장권싸이는 강조했다.

CNOOC는 넥센을 151억달러에 인수키로 합의하고 넥센 주주 총회의 승인까지 받았으며, 성사되면 중국기업 최대의 국외 인수가 된다.

그러나 캐나다 최대 야당인 신민당은 “중국 정부가 완전히 통제하는 CNOOC가 캐나다의 전략 자산을 인수 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캐나다의 아바커스 테이터가 최근 실시한 캐나다 여론 조사에서도 CNOOC의 넥센 인수에 반대하는 비율이 69%로 8%의 찬성을 크게 압도했다.

이에 대해 CNOOC는 넥센을 인수해도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며 캘거리 본사를 북중미 거점으로 유지하고 토론토 증시 상장과 넥센 브랜드를 유지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9월6일 밴쿠버 회동에서 CNOOC의 넥센 인수에 대한 불신과 경계감이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24>